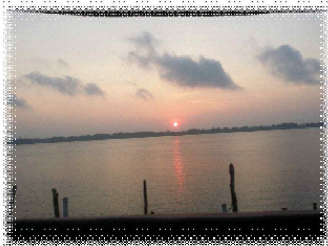


## 하박국네 이야기 2018. 12

E-mail : [kahh1691@hanmail.net](mailto: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070-4643-7633 (인터넷 전화)  
(855)096-345-5024 / 096-358-6300 (캄보디아)  
카카오ID : kahh0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시티은행 가형호  
502-910658-70507 K E B 하나은행 가형호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15)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기도 하였고 사고로 소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교지로서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인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에 봉착했을 때 얼마나 그것들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일 년간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과 정성을 담은 후원으로 저희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셨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의 말씀은 요즘에 학사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깨달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한데 우리학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역사는커녕 변화의 조짐도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지라도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신 가르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참 제자로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뛰어나신 예수님의 참 목자상을 보게 되면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리더십으로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참 목자로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인간의 지식과 사고로 알고 있지는 않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만 양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하시고 부족한 저를 베드로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목자 참 일군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듯이 저에게도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덧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갔듯이 저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도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덧 입었고 깨달았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고 그 사랑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갔기에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새 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믿음도 일어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없음을... 이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바리세인이 되고 마는 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매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7-40)**

♥ **주일예배** ♥



3개월 간 기간 동안 비로 인하여 물이 차있던 곳들이 다 빠져가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마다 물에 차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저희들을 마음들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쁜날이 다가오듯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새해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코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않음을...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더욱더 힘을 내어 달려갑니다.



기존에 나오던 아이들이 섬의 물난리로 인하여 나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한 두 명씩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때도 있고, 한 날은 절에 큰 행사와 예배시간이 겹쳐져서 예배들이던 아이들이 갑자기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구나!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주일날 예배로서는 아이들이 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이들을 학사에 데리고 오는 문제인데 섬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농사일로 모든 가족들이 동원되는 시기가 요즘 시기이기에 신앙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교회와 교육할 장소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대한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배 후 성경공부를 통하여 아이들을 말씀으로 다져나가는 일이고 나중에 교회와 센터가 마련되면 주중의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들을 구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이들이 참된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군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 **영어교실** ♥



새해부터 학교교실을 빌려서 방과 후 영어교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실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에 물이 차서 교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교실을 청소하고 책걸상도 침수로 인하여 망가져 있었던 책걸상을 수리하고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습니다.

옆에 사진처럼 약 2미터 가까이 교실에 물이 차 있어서 교실에 있었던 책걸상과 책 책장들이 망가져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닥에는 진흙이 쌓여있어서 몇 번이나 쓸어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다시 침수 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교실을 높여서 지어야 할 상황이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한 이 나라의 상황이라 그저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있는 장소를 최대한 사용하여 영어교실을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주일예배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하기때문에 교육부와 면장의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다는 교장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프랑스 식민지 때의 영향으로 그 나름대로 잘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단 20명의 아이들을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아이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잘 진행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도제목 ♥

1. 모든 사역에 시험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군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 큰 섬(꺼쏘띠) 지역과 작은 섬(꺼트메이) 두 지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작은 섬(꺼트메이)에 교회와 문화센터가 세워져서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신앙촌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 섬들이 우상을 섬기며 드렸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3. 새해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어교실을 통하여 아이들이 주일예배에도 참여하고 믿음의 일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완다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이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4. 중학생들 학사도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학생은 생활비와 학비가 한 명당 약 75\$ 들어가는데 이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여자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여자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중학교부터 학사를 하기위해서 한 사람당 10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명씩 자매 결연을 하거나 조금씩(만원, 이만원 ...) 후원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다란이와 씨타가 저희 학사에서 떠났습니다. 다란이는 동생결혼으로 인하여 부모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할 수없이 부모님의 호출로 집으로 가게되었고, 씨타는 프놈펜 도시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여서 프놈펜으로 학교를 가게 되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6. 새롭게 온 완다청년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남의 비밀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군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7.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 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은, 하원, 하영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며 필요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좋은 일군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며, 주 파송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 캄보디아에서 가형호, 손은숙, 하은, 하원, 하영 선교사 올림 --